남북 경협·북-미 관계 개선 탄력받나

北 김양건 평양 귀환…공동보도문·합의문 발표는 없어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2박3일간의 남한 방문 일정은, 정상회담 후 지난 두달간의 합의 이행 현황과 앞으로 예상 상황에 대해 남북 정상이 간접 점검하고 논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 부장의 방남 목적중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북측의 관심은 분명히 드러났고, 남·북 당국도 이 점을 부각시켰다. 김 부장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회담에서 '2007남북정상선언'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경협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고, 경협 촉진 방안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이는 김 부장의 일정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도착 첫날 인천 송도경제자유지대를 방문해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벨트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틀째는 안변 조선단지사업을 추진하는 대우조선소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됐을 때 물류항이 되는 부산 세관 등을 둘러봤다.

그러나 김 부장의 방남 목적가운데 핵심일 수도 있는 정치분야에 관해선 남북 당국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2000년 9월 김용순 통전부장의 방문 때는 7개항의 합의서가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합의서 발표도 없었다. 추측 단서는 있다.

노 대통령이 김양건 부장에게 "북한이 6자회담에서의 진전을 꾸준히 달성해 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접근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남북정상선언의 차질없는 이행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도 비핵화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이재정 장관은 "종전선언 문제는 결국 북측과 미국측 사이에 진전돼 나갈 과제인 만큼 서로는 양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타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측으로 보면, 김 부장의 서울 방문은 대선의 한복판에 있는 남한의 최근 정세를 현장에서 탐색한 기회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김양건 부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이행궤도에 확실히 진입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보충하려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장의 방남 과정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내년 서울 방문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

에이즈 없는 세상을 위하여…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 에이즈 퇴치운동의 국제적 상징인 대형 붉은 리본이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코르토바두 산 꼭대기의 '구세주 그리스도'상 앞에 걸려있다. /연합뉴스

한-일관계 "개선" 미-일관계 "악화"

日 국민 3천명 여론조사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나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내각부가 1일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10월 전국의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유효 응답률 58.6%)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거의 절반인 49.9%로 1년 전 보다 15.5% 포인트가 상승하며 '좋지않다'는 응답(45.1%)을 3년만에 역전시켰다.

이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한때 크게 악화됐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한국 방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아시아 중시 외교 등으로 관계가 나아지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76.4%로 지난 해보다 6.4% 포인트가 감소한데 비해 '좋지않다'는 답변은 20.4%로 무려 8.8% 포인트가 증가했다.

일본 국민들이 미일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는 비율이 20%를 넘기는 처음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해상자위대의 미군함 급유지원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26.4%인 반면 '좋지않다'는 비율은 68.0%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불능화·핵 신고 D-30…북핵 협상 중대 국면

힐 차관보 오늘 방북 '신고 담판' 주목

연말까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가로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외교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북핵 6자회담 '10.3 공동선언' 이행 목표시한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핵 협상이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3일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롯해 북한 정치·군사지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고 뒤이어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북핵협상의 원만한 이행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1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전례없는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장애물이 수년 동안의 민감한 협상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도왔다는 의혹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통신은 지난 달 16일 뉴욕에서 미 행정부의 전·현직 관리, 북한 정부 대표, 미국 협상 대표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에게 시리아와의 핵연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할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리아는 핵시설을 건설해왔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고, 북한도 핵기술을 외국으로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반박해왔다. 통신은 또 미국은 북핵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 의혹과 함께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에 대한 믿을만하고 상세한 설명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3일 북한을 방문하는 힐 차관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으나 북한은 우라늄 핵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철저한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 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지난 1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강연에서 "북한은 UEP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UEP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나 자재를 도입한 데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UEP와 관련해) 무엇을 했는 지 인정하고 무엇이 진행됐는 지를 해명하고 관련 자재 등을 처분하기를 원한다"고 촉구,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힐러리 선거 캠프 난입 무장괴한 체포

인명피해 없이 인질사태 종결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뉴햄프셔 주(州) 로체스터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인질납치 소동을 벌였던 무장괴한이 사건발생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질사태로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 및 경호 문제가 향후 대선정국에서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리 아이젠버그라는 이름을 가진 무장괴한은 이날 오후 1시께 클린턴 선거캠프 사무실에 난입해 자원봉사자 등을 인질로 붙잡고 클린턴 의원과 대화를 요구했었다.

아이젠버그는 뉴햄프셔 주 출신으로 정신병력이 있으며 정신질환 관련 의료보험체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데다 최근 실직상태로 이혼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젠버그는 이날 오후 1시께 클린턴 선거 사무실에 난입, 자원봉사자 등을 인질로 붙잡은 뒤 가슴에 폭발물을 부착한 것을 보여주며 클린턴 의원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아이젠버그는 선거 사무실 주변이 무장한 경찰들에 포위된 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을 풀어주고 이후 또다른 인질 2명을 내보냈다.

인질극이 벌어질 당시 클린턴 의원은 민주당전국위원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워싱턴에 체류중이어서 화를 모면했다. /워싱턴=연합뉴스

中 정계 뒤흔든 '섹스 스캔들'

고위공직자 10여명 옷 벗긴 '情婦' 신원 드러나

진런칭 전 중국 재정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0여명을 낙마시키며 중국 관가를 뒤흔든 '공동 정부(情婦)'의 신원이 드러났다.

홍콩 언론은 2일 중국의 경제 시사잡지 '차이징'을 인용, 윈난성 쿤밍 출신의 리웨이(44)라는 여성이 당시 '부패동맹'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리웨이가 관련된 섹스 스캔들로 인해 지난 8월 진 전 부장이 전격 경질됐으며 쉬융웨 전 국가안전부장, 천퉁하이 시노펙 회장, 두스청 칭다오시 서기 등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중국 고위층 사이에서 '리제(李姐)'로 일컬어지던 리웨이는 커다란 눈에 시원시원한 얼굴, 뛰어난 몸매와 함께 절도있는 행동거지와 품위있는 말솜씨로 고위 공직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에서 학업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올라간 리웨이는 천퉁하이 시노펙 회장과 먼저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이후 두스청 서기를 소개받아 본격적인 '공동 정부'의 길로 들어섰다.

리웨이는 두 서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칭다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칭다오 시노펙 정유시설과 올림픽 요트경기장 개발에 관여했다. 리웨이의 말 한마디가 개발사업 전체를 흔들 정도였다. 리웨이는 또 쉬융웨 전 국가안전부장을 통해 '특수 임무' 명목으로 홍콩 출입을 허가받고 홍콩 신분증을 얻어내는 등 강력한 로비력을 과시했다. /홍콩=연합뉴스